

## 사이토 히토리의 상식을 깨부쉘라



- \* 종합 베스트 1위 '1퍼센트 부자의 법칙'의 저자 사이토 히토리의 최신간!
- \* 상식 파괴로 대(大) 성공의 길을 열어라!
- \* 운과 매력을 폭발시키는 상식 파괴법!
- \* 누구나 상식을 깨부쉘도 되는 최고의 시대다!
- \* 행복한 부자 사이토 히토리의 유쾌하고 따뜻한 상식 파괴법!

무료 샘플북 PDF

## 차례

### 시작하며 04

### 1장 사랑이 담긴 상식 파괴

홀가분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것이 신의 길이다 15

상식 파괴에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 17

사랑을 담은 상식 파괴로 회사를 성장시켰다 19

제멋대로 구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22

인간관계를 잘 다스린 사람이 인생도 잘 다스린다 24

당신의 영혼은 사랑을 추구한다 27

‘공부를 못한다=머리가 나쁘다’는 커다란 착각이다 30

사랑의 상식 파괴로 만들어진 엘리베이터와 비행기 34

밝고 즐겁게 상식을 파괴해라 36

사랑이 없으면 실패한다 39

### 2장 인생을 바꾸는 상식 수용하기

100퍼센트 정확한 법칙은 없다 45

타고난 환경과 재능은 사랑과 무관하다 47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면 상식을 참고하라 51

‘남들과 같으면 옳다’는 고정관념 53

고생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54

길은 하나가 아니다 58

이에야스는 성급한 사람이었다 61

상식도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 64

쉽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다 65

다 함께 목소리를 높이면 상식도 바뀐다 69

### 3장 운과 매력을 폭발시키는 사랑의 상식 파괴

사람은 자유 의지가 있고 자유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75

반드시 지녀야 하는 ‘그만둔다’ 카드 77

개와 고양이보다도 자유가 없습니까? 80

사랑과 매력이 가득한 일 82

유쾌한 프로 상식 파괴자인 어머니 86

성실한 사람에게도 미소와 유머가 필요하다 88

실수해도 좋으니 사랑이 깃든 길을 걸어라 92

공연한 참견은 단순한 괴롭힘이다 94

사랑으로 살아가면 싫은 사람도 사라진다 96

지금 배우고 익히면 한층 더 진보된 수행을 하게 된다

100

### 4장 상식 파괴로 대성공의 길을 열어라

대장은 최전선에서 겨뤄야 한다 107

사업 면에서 히토리의 상식 파괴란? 109

사랑이 있다면 일은 어렵지 않다 112

동료끼리 서로를 방해하는 이유는? 115

불만스러운 얼굴에 사랑의 결핍이 보인다 118

불평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불씨 121

큰 성공을 이루는 세 가지 비법 124

어디서나 모두에게 사랑을 전달하자 126

승부에 집착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다 131

## 5장 지금부터 사랑으로 살아가려면

사랑으로 바라보면 고민이 단번에 해결된다 137

인생은 작은 결정이 축적된 결과물이다 139

참으면 원망만 생길 뿐이다 141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다’는 최고의 가르침  
143

아무리 괴로워도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다 146

근엄하기만 한 인생에는 성공이 없다 149

사랑은 절박할수록 뚜렷한 효과를 나타낸다 153

누구나 상식을 깨부셔도 되는 최고의 시대다 155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해지면 상식 파괴 자체가 사라진다?  
158

핵심 요약 162

끝마치며 173

## 시작하며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세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획일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상식을 깨부숴라

앞으로는 자신의 가치관대로 좋아하는 길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나아가면 됩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진심을 감출 필요가 없고, 굳이 세상의 상식에 따르지 않아도 훌가분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념에 얽매이고 강요당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행복한 성공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저절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기만하면서까지 참아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행복을 발견하고 그 과정을 즐기면서 행복한 성공의 목표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도 웃고 너도 웃을 수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올바르게 여겨지는 상식일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좋은 상식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다면 과감하고 대담하게 상식을 파괴하는 행동일지라도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당신의 마음에 큰 울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저의 진심이 전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행복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도 사랑의 길을 즐겁고 행복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이토 히토리

홀가분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것이 신의 길이다.



세상은 지금 체면, 단체, 규율과 같이 근엄하고 딱딱한 것으로 부터 가볍고 자유로운 것을 중시하는 흐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유, 즐거움, 유연성과 같이 경쾌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느낌은 마치 구름이 자유자재로 형태를 바꾸면서 전달하는, 포근하고 보드라 우며 폭신한 느낌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면서 더욱 가볍고 자유롭게 행복한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볍고 자유로운 시대가 앞으로 천 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답답한 일이 많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꽉 막힌 느낌은 점차 줄어들고, 반대로 훌가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확실히 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이 계획한 흐름이고,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세상입니다.

훌가분하게 마음을 비운 사람일수록 행복해지고, 따뜻한 삶을 선택한 사람일수록 성공에 먼저 도달합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얼마나 가볍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대안을 찾아 더 밝은 미래와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지가 바로 행복한 성공을 위한 승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벼움을 강조하는 이유가 궁금하시지요? 그럼 가볍게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훌가분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삶이 한결 수월해지니까요.

마음이 가벼운 사람에게는 세상이 훨씬 친절하게 다가가

고 마치 놀이공원에 가 있는 것처럼 인생도 놀이처럼 즐겁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복한 부자들은 소소한 일에 사로잡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사에 힘을 빼고 몸을 이완해서 생각하고, 얼굴엔 언제나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조차 게임에서 마주친 강적을 물리치는 것처럼 상황을 즐기며 전략을 생각해 냅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실망한 채로 망설이거나 방황만 하지 않습니다.

물론 큰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미움을 사거나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테니까요.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부터 먼저 성공하고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계획이니까요.

\* 아래 링크에서 도서를 구매해주시면 ‘책추남TV  
절판도서 살리기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식을 깨부숴라’ 구매하기  
(클릭)



당신의 영혼은 사랑을 추구한다



사랑이 빠진 상식에 얽매인 사람은 괴로워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이렇게 해야 상식적이야.’ ‘나이를 그만쯤이나 먹었는데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 등의 이유로 속마음과는 다른 반대의 행동을 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절규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무조건 잘 다녀야 해.’ ‘회사에 꼴 보기 싫은 상사가 있지만 그만둘 수는 없어.’ ‘상대가 너무 싫지만 어



떨 수 없어. 만나야 하니까.’ 휴우,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과연 당신에게 진정으로 사랑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중졸입니다.

게다가 초등학생 때부터 제대로 학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각이나 조퇴, 결석을 밥 먹듯이 했어요(^^). 숙제를 해 간 적은 손에 꼽고요(^^). 세상의 상식으로 본다면 의무교육 기간에 학교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숙제도 제대로 해 가야 되죠.

요즘 같은 시대에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은 아마도 소수일 겁니다.

경제적인 사정이나 그 밖의 어떤 이유로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부분은 전문학교나 대학에 입학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식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어쨌든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싫어했습니다. 공부가 싫으니 아무리 애를 써도 좋아지지 않았습니 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빠진 상식에 얽매어 스스로를 학대하기보다는 인내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선생님과 부모님으로부터 “학교는 다녀야 한다.”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커서 뭐가 되려고!”라는 잔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고집을 부리며 귀담아듣지 않았지요(^^).



상식대로라면 이렇게 유년 시절을 보낸 저에게는 암담한 미래가 펼쳐져야겠지만, 저는 모두의 예상을 깨뜨리고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최고의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며 나라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만약 어릴 때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성공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괴로움에 절규하는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마도 저는 영혼의 소리를 무시하고 사랑이 없는 길로 나아가면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지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영혼이 추구하는 사랑이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아서 주위 어른들께는 걱정을 많이 끼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저 자신과 주위 사람들, 더 나아가 사회에도 사랑이 전해지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랄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전전긍긍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정작 문제는 걱정하는 어른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관계없어요. 모든 영혼은 사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어른들은 묵묵히 지켜보는 역할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서로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 아래 링크에서 도서를 구매해주시면 ‘책추남TV 절판도서 살리기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식을 깨부숴라’ 구매하기  
(클릭)

‘공부를 못한다 = 머리가 나쁘다’는 커다란 착각이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 중에도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창 시절에 성적이 좋지 않아서, 또 명문 대학을



졸업하지 못해서 열등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모두 당신의 인생에 불필요한 열등감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자신을 어리석다고 단정 지어 버리거나 비하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낮추는 것이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 훨씬 큰 잘못입니다.

사실 ‘공부를 못한다 = 머리가 나쁘다’는 커다란 착각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가 학교 공부를 중시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주변에서 “대단해!” “머리가 비상하구나!” 등의 칭찬을 많이 합니다.

게다가 성적이 좋으면 부모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공부를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재능을 키워 나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면 정말 기쁜 일이지요. 다만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고, 공부를 못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공부는 대부분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대체로 공부를 잘하지요. 기

억력과 성적은 대체로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좋은 기억력이 성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이 둘은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봐야겠지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저는 공부에 매우 서툴렀고, 솔직히 시험을 보면 항상 낙제를 면치 못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험도 제대로 보지 않을 때가 많아서 시험 보는 날에 학교에 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하하!) 그런 제가 일본에서

납세 1등을 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더

욱이 졸업 후에 막상 두껍을 열어 보니 상식을 깨뜨리고 크게 출세를 했지 뭐니까(하하!)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랑이 중심에 있다면 누구에게나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최고의 방법으로 상식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토리니까 성공한 거야!’라거나 운 좋게 하늘이 도왔다는 이야 기가 아닙니다. 운도 미래도 당신이 마음먹는 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으시지요? 그렇다면 당신도 중심에 사랑을 두고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 아래 링크에서 도서를 구매해주시면 ‘책추남TV  
절판도서 살리기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식을 깨부숴라’ 구매하기  
(클릭)

고생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룬 영웅담처럼 개천에서 용이 나온 스토리를 좋



나비스쿨

아합니다. 힘겹게 고생하는 과정을 겪어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행복이나 성공에는 늘 고생이 따른다는 생각이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은 “지금 참고 견디며 노력해야만 어른이 되어서 고생하지 않는다”는 위협적인 말로 필사적으로 공부하게끔 아이들을 채근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고생을 한 사람이 결국 행복해지고 성공한다면, 공부만 해 온 초엘리트층에게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반대로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좋아하는 일만 해 온 저는 왜 이렇게 행복한 걸까요?

대답은 명확합니다.

고생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살면서 고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중압감을 짊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점점 행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고생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의 전기를 읽어 보면 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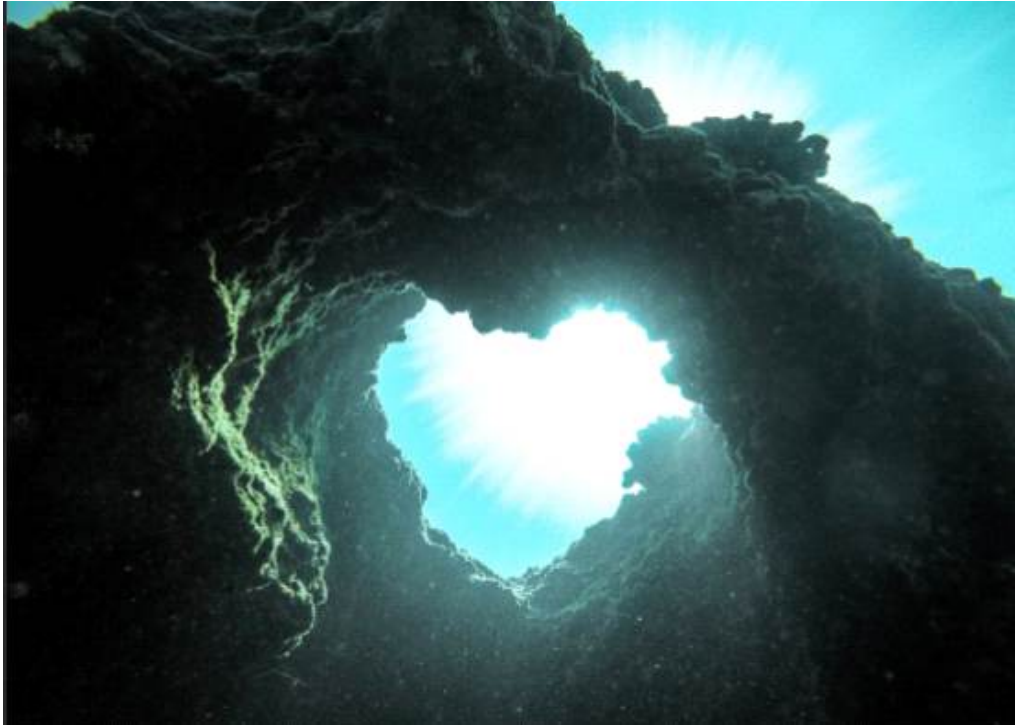


분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고생담이 나오는데, 정작 본인은 “그 정도까지는 고생하지 않았는데…”라고 할지 모릅니다(하하!)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며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가벼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에 시련이 닥치더라도 마치 서핑을 하는 것처럼 즐기며 극복해 나갔을 것입니다. “아주 높고 단단한 장벽이 있었지만, 하나씩 깨 나가는 과정이 짜릿했어요!”라며 즐거운 기억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고생이 고생처럼 여겨지지 않은 이유는 과정이 즐거웠기 때문 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고 보람과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고생담으로 구성한 것은 아마도 저자나 출판사가 아닐까요?(^^) 주인공이 인내하며 매우 험난한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결국 성공 하게 되었다는 성공스토리가 대중에게 더 환영을 받을 테니까요.

승부에 집착하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



일뿐만 아니라 요즈음은 스포츠 세계에서 ‘즐거운 감독’, ‘틀을 깨 즐거운 연습’을 한 선수나 팀이 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즐거운 것이 사랑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강하기 마련입니다.

옛날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겠지만 앞으로는 점점 이렇게 ‘즐거이는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진리가 새로운 상식으로 뿌리를 내리게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사랑이 중심에 있으면 승부에도 구애 받지 않게 될 겁니다.

승부에서 이기는 것은 물론 기쁜 일입니다.

다만 사랑이 있으면 승부를 겨루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기 때문에 패배했을 때에도 초조하거나 한탄하거나 슬퍼할 일이 없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심, 그리고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힘을 냅시다!”와 같은 밝은 기분이들 뿐이죠.

승부에 관계없이 상쾌한 기분으로 시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감각의 소유자는 승부를 거듭할 때마다 강해지기 때문에 승부에 집착하지 않아도 결국은 이기게 되지요.

사랑이 중심에 있다는 것은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난 인간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해요. 인간성이 좋은 사람에게 무언가 결과가 따라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그리고 일에는 원래 경쟁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회사가 도산했다거나 ○○회사가 타사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은 실적을 올렸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는데, 이것은 경쟁에서 저서 도산한 것도 아니고, 경쟁에서 이겨서 매출을 늘린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경쟁하는 회사가 두 곳 있다고 가정하고, 한쪽이 살아남았다고 합시다.

이것은 다른 한쪽의 회사가 경영을 잘 못해서 스스로 망한 것이 예요. 즉 경쟁사가 탈락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경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어느 쪽이 패했다거나 승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은 회사 간의 경쟁이 아니라 고객과 세상에 대한 아이디어 승부입니다. 타사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죠.

고객과 세상을 웃는 얼굴로 만들려면 사랑으로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경영으로 시대에 맞게 ‘세 가지 비법’을 지속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가능해진다면 신이 응원을 해 주기 때문에 타사를 이기기 위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회사는 자연히 성장합니다.

노력했는데도 회사 경영이 잘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노력했다고 해서 반드시 ‘세 가지 비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비법’이 가능하다면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두 승리하



면 좋겠지요.

- \* 아래 구매 링크에서 도서를 구매해주시면 ‘책추남TV  
절판도서 살리기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식을 깨부셔라’ 구매하기  
(클릭)

